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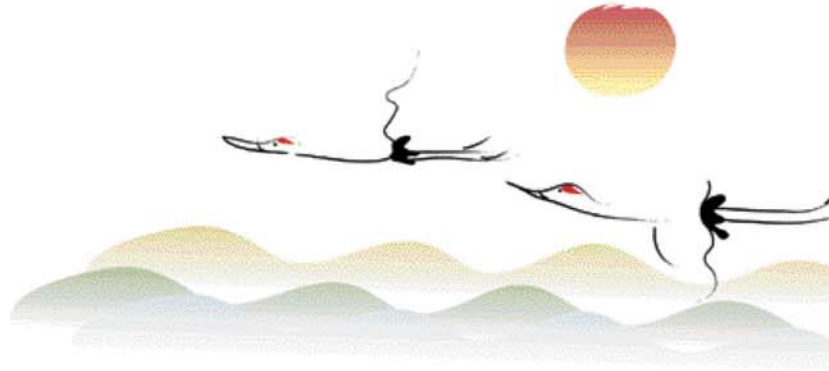
## 태양가족

2005년 신년호



한은영 명예회장님

지불 대금 한번, 사원 급여 한번 밀린 적 없이 끝은 의지로 태양금속을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하신 한은영 명예회장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기본철학과 신념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숭선수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끝은 정신을 가진 한은영 명예회장의 경영철학과 생활신념이 담겨져 있는 어록을 되돌아보면서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합니다.



## 창업주의 가르침

## 성공의 길로 달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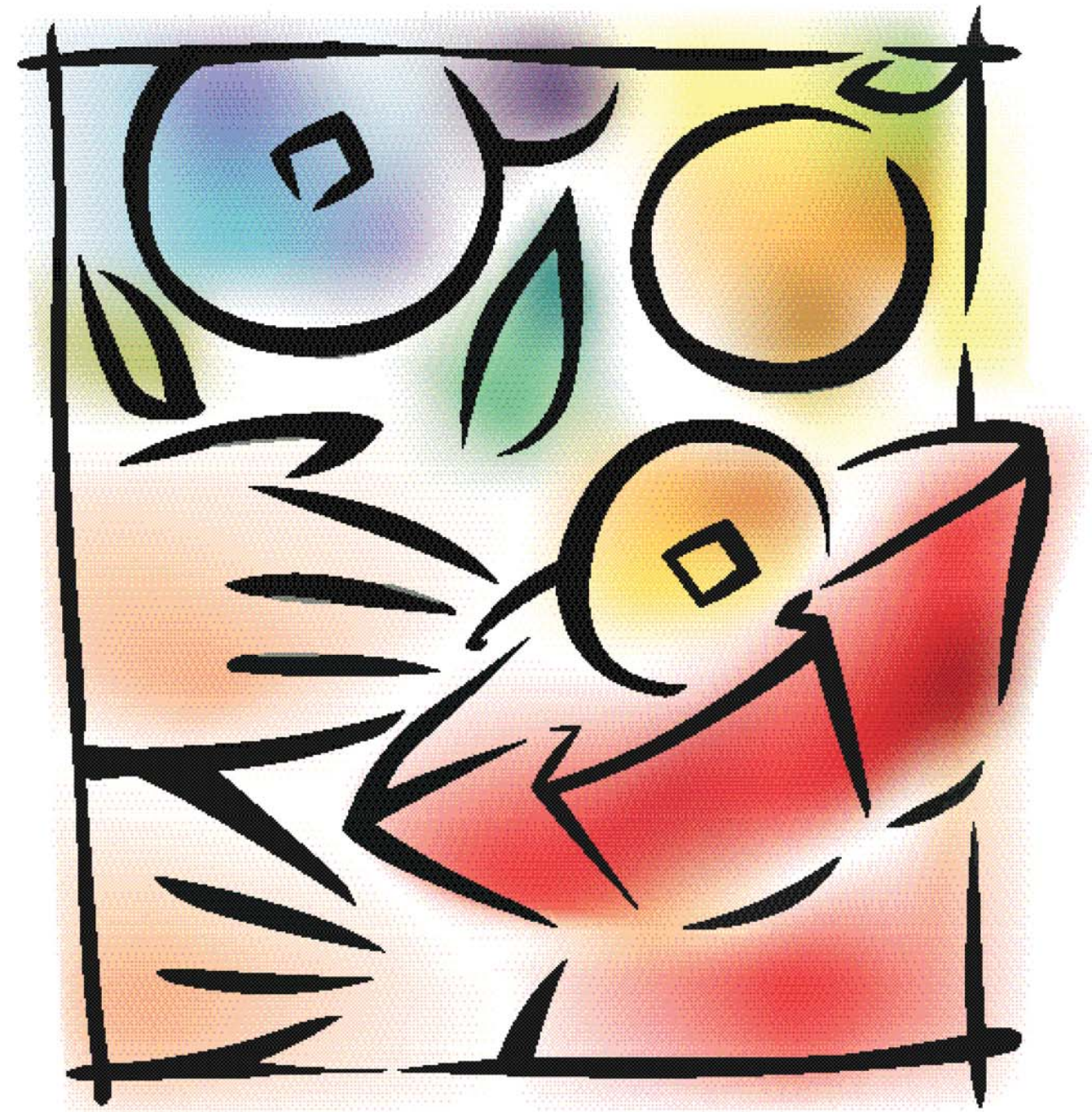
- 정 직 (正直)
- 유 능 (有能)
- 노 력 (努力)

※위의 세 가지는 가장 빠른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조건이 될 것이다.  
(1971. 12. 6)

## 사내 장미제에서

젊었을 때 자기의 몸가짐과 처신을 바르게 하고 평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처세관(處世觀)을 올바르게 갖자.

적으나 크나 항상 생각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긍지(矜持)를 갖자. (1977. 6. 4)





# CONTENTS

|                       |    |
|-----------------------|----|
| 창업주의 가르침              | 2  |
| 목차                    | 3  |
| 경영자 갈림                | 4  |
| 경영자 갈림                | 6  |
| 태양뉴스                  | 8  |
| 변화 & 혁신               | 14 |
| 이달의 이슈                | 16 |
| 연수를마치고                | 18 |
| 우리부서 만만세              | 20 |
| 러브하우스                 | 22 |
|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 24 |
| 새로운 우리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 25 |
| 테마가 있는 이야기 여행-닭띠들의 합창 | 28 |
| 어른들이 읽는 동화            | 32 |
| 발길 따라서                | 34 |
| 사우동정                  | 36 |
| 유머가 좋다 퀴즈가 좋다         | 38 |
| 50년을 함께               | 39 |

##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태양 가족 여러분과 함께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오늘 맞이하는 새해 아침은 그동안 함께 태양을 이끌어준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작년 국내 경기는 지속적인 내수 침체로 많은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 규모도 년 초의 2,900톤에 비해 연말에는 4천 톤을 초과함으로써 39%의 생산량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0%를 상회하는 원재료의 폭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각종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은 한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일부 업체들은 조업 중단에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환율 하락, 고유가 지속, 주40시간 근무 등 원가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어 05년도는 비상경영 체제 하에서 원가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있고 위기가 곧 기회일수가 있습니다.

산적된 어려움은 태양의 체질을 단련시키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있고  
위기가 곧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산적된 어려움은  
태양의 체질을 단련시키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련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를 5년 내에 5천억 원 10년 내에 1조원을 달성하여 태양의 60주년 행사 때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선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 동참할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그 변화의 속도로 인해 과거에 안주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과거 성공요인에 타성적으로 매달리는 기업은 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자기부정과 노력을 경주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 기존의 강자도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화와 지식화 마인드를 고양해야 합니다.**

정보와 지식은 사회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모든 지식에 값이 매겨지는 지식가치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태양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면 회사의 지식가치 상승은 물론 개인의 발전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해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지식과 기술이 훨씬 빨리 노후화 되므로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개인간 부서 간에 막힌 벽을 헐고 서로간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축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 제약업체는 비타민도 음료처럼 마실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초기 매출액 53억원에서 4년 뒤인 2005년에는 30배에 가까운 15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를 창출하여 스피디한 경영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당사는 50년간 단조 부문의 생산을 통한 OEM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사업다각화에 역량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금년은 을유년 닭띠 해입니다.

힘찬 울음소리로 새벽을 열어가는 닭처럼 태양 가족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능력을 소유한 태양인이 됩시다.

선의를 경쟁과 협조를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역경도 담담하고 여유 있게 극복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태양인이 되도록 을유년 한해 멋지게 생활합시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의 해가 되길..

태양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달리면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새해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양극화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당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의 매출 향상과 사내 월 생산량이 년 초 대비 39% 상승이라는 큰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을유년 새해를 맞는 오늘 아침은 어느 해보다도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당사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외부환경을 고려해볼 때 금년의 제반 경영 여건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기업체에서는 IMF 보다 더한 불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는 당사 ITEM의 부가가치가 적어 많은 양의 매출 실적은 올렸으나 그에 걸맞는 적절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높은 매출액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년 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실현 하였고 수익구조도 높은 원가율로 인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수출을 확대하여 5년 내에 해외 수출이 매출액의 30%를 점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팀을 보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당사의 중국 현지법인 공장의 가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해줄 기술과 이화력을 겸비한 인력양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황 규 홍**

그밖에 태양만이 내세울 수 있는 고유기술이 없고 설비투자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차입금과 금년부터 시작되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할 생산성 향상 등도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의 폭풍을 몰고 올 원자재 대란과 환율 하락, 고유가의 지속, 끝없는 내수 경기 추락 등은 1조원의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들에게 극심한 시련을 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조 원가에 관리비용과 수익을 덧붙여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고객이 결정한 판매가격에 제조원가와 비용을 공제한 것이 이윤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정한 판매가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외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절감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가 수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화의 평가 절상을 용인한 플라자 협상이후 급격한 엔화 절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도요타 자동차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로 환율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수익을 달성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건실하게 단련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그 빛을 발하는 태양의 저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비전을 위한 준비단계인 기반 조성기였다면 올해는 미래를 향한 당당한 첫걸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경영 방침에도 언급되었듯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내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낭비의 원류를 제거해야겠습니다.

제조원가와 비용의 절감만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용절감은 낭비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낭비의 제거보다는 “왜(WHY?)”를 5번 외치면서 근원적인 낭비를 파고들어 제거해야만 낭비의 재발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낭비의 요소를 발견하는 안목을 키우고 발견된 낭비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인을 추적해서 개선하는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사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도요타 자동차가 50%의 비용절감(half cost)을 추진하듯이 태양은 도요타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비용을 절반이상으로 줄인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수익성 위주의 아이টে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4천 가지가 넘는 아이টে으로 소량 생산을 해서는 부가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적자 품목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년은 GM 수출이 본격화 되고 중국 공장도 가동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현지 법인 및 지사 설립, 인원 파견, 생산 및 판매거점 육성 등의 업무가 뒤따를 것입니다. 국내 고객만을 상대로 사업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금년은 해외 사업의 원년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가짐도 국내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포함하여 넓고 크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품질문제입니다.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꿈은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GM에 수출되는 제품에 품질과 관련하여 CLAIM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경비 손실은 물론 회사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에는 어떠한 지름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비된 시스템 하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품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고객의 신뢰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 다섯째, 평가 시스템에 의한 목표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것은 경쟁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도 건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팀별, 개인별로 평가함으로써 열심히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 조직 전체 수준이 역동적으로 상승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평가를 통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관리해야겠습니다.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10년 내에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태양금속을 가슴속에 그리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aeyang News

NEWS

## 『제41회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탑 수상



무역의 날을 자축하며 무역 종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COEX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제41회 무역의 날』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이날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내수부진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상한 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추리점등식 실시



지난 12월 9일(목) 오후 5시 30분에 장미원 앞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리점등식이 있었다. 이날 점등식에서 한우삼 대표이사 회장은 한해에 어려웠던 일들을 잘 극복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2005년은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기반의 해로 만들어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 내부 품질/ 환경 심사원 워크샵 실시



지난 10월 8일(금), 9일(토) 오전 8시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에 있는 동서증권 연수원에서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인 ISO/TS16949, ISO 14001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 심사원 LEVEL-UP을 위해 내부 품질/환경 심사원 워크샵이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내부 품질/환경 심사 개요 설명 및 심사계획 수립을 통한 조별 발표가 이루어졌다.

## 2004년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실시

지난 10월 12일(화), 10월 19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양 이틀에 걸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예방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임직원 본인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NEWS

## 하반기 내부품질환경심사 실시

지난 10월 20일(수), 21(목) 2일에 걸쳐 HMC/KMC 품질5스타 평가 및 ISO/TS16949/ISO14001 사후 심사를 대비하여 문서화 된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부적합 사항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품질환경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심사가 있었다.

##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소방교육 및 소방 훈련 실시



지난 10월 29일(금)과 30일(토) 2일에 걸쳐 회사광장 앞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12시50분부터 화재예방 특별소방교육이 있었다. 이 교육은 화기를 많이 다루는 동절기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직원들의 방화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에 대한 실습을 가졌다.

## 태양가족 등반대회 개최



지난 11월 7일(일) 노사화합을 위한 등반대회가 하남시 검단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욱 노조위원장 및 주영 이사를 비롯한 많은 태양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산행으로 태양가족은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사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가족 오락을 통해 회사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다.

## 리모델링 추진계획 설명회 실시

지난 11월10일(수)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각 부서팀장 및 현장 5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생산현장작업 표준화 및 눈으로 보는 관리와 현장관리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 2005년 대졸 공채 신입사원 면접전형 실시

지난 11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본관동 2층 소회의실에서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2005년도 대졸 공채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다. 이날 면접은 335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 55명의 면접을 통해, 12명의 신입사원이 태양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난 11월 17일(수) ~ 11월 30일(화)까지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13조 및 시행령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아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된 교육이다.

## 회사고사 실시

회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가 11월 23일(화) 오후 6시부터 많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회사고사는 직원들의 안녕과 회사의 무사안일을 바라는 의미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고사였다.



##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설명회 실시

지난 12월7일(화) 오전 10시부터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근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이해를 돕고 세제혜택을 받음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명회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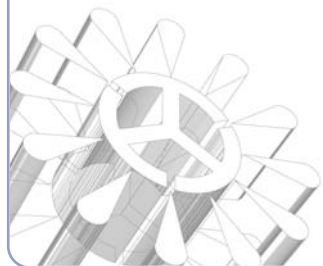
## 2004년 경기도산업평화상 강대용 대리 수상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에 공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경기도산업평화상 시상식이 12월 10일(금) 오후 5시에 월드컵 경기장 내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산업평화상 개인부문 장려상에 생산6반 강대용 대리가 수상하였으며, 상패와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 대졸신입사원 사외교육

지난 12월13일(월)~15일(수)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청호인력개발원에서 '05년 대졸 신입사원 및 수시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사외 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회사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 배양을 통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었으며, 이날 교육에 참석한 황규홍 대표이사 사장은 "프로의식과 직장인의 기본자세"라는 주제로 신입사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Taeyang Metal



NEWS

이날 황규홍 사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마쓰시다 그룹을 일군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3가지 행운인 “가난함에 겸손하였고 건강에 겸손하였으며 배움에 겸손했다.”라는 말을 신입사원 모두가 가슴 속 깊이 삼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제품 품질확보 매뉴얼 책자 발간

신제품 개발의 이해와 신규 부품개발 프로세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제품 품질확보 매뉴얼 책자가 발간되었다. 발간된 책자는 신제품 개발 및 품질업무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 각 단계별 목표 품질이 달성된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안정된 우수한 부품 양산을 위해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단 신 뉴스 스

원가절감 아이디어 공모

환율 하락 및 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투철한 원가/에너지 절감 마인드 고취와 전사적인 불을 조성하기 위해 원가절감 아이디어 공모가 지난 11월 30일까지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열처리과 송병탁 직장이 냉각유 재활용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잔반량 줄이기 캠페인

지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경오염 방지와 원가절감을 위한 “잔반량 줄이기 캠페인”이 시작되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시 전에 비해 50%이상 잔반이 줄어들었으며, 잔반 줄이기 캠페인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복지회관 환경조성에 사용되었다.



언론에 비친 우리회사



주간동아



한국경제신문



중부일보





# 변화로 본 태양금속

2004년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대외적으로 태양금속의 위상이 높았던 2004년도였습니다.



창립50주년 기념행사



한우삼 대표이사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태양금속 50년 사사 발간



〈싱글PPM 품질혁신대회〉  
황규홍 대표이사 사장 대통령 표창



『2004 대한민국 생산성 컨퍼런스』  
생산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4 대한민국 품질대상』  
품질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은영 명예회장, 현대자동차 수출  
천만대 달성 기념 감사패 수상



『제41회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탑 수상

乙酉年인 2005년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으로 매출액 1,700억원, 생산량 62,000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 2005년 경영방침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신태양인 3대요건"

도전적 기상 / 창의적 사고 / 적극적 자세

경영방침

1. 한계극복 / 미래역량
2. 효율향상 / 총력절감
3. 성과중심 / 인재중심



# 최근의 환율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국내 경제계의 화두는 단연 달러 약세일 것이다.

사실 1997년 12월 이전까지는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환율문제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강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던 1997년 12월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면서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라 기업의 환 위험은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의 약 달러 추세의 이유는 무엇일까?

환율은 국제 정치, 경제, 사회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금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를 용인해 온 부시 행정부의 재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달러약세에 따라 원화강세 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폭의 확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미약,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 등이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수차례 현재와 비슷한



해외사업팀 이제영 대리

달러약세 현상이 있었으며, 이것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피 할 수 없는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약달러 추세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환율추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같은 환율체제가 국내경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국내 물가안정 및 이에 기인한 내수회복과 서비스 부문 활성화, 그리고 한계산업 정리 등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대외수출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

또 이러한 환율체제는 압박한 미국시장 진출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당사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당사 매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환율추세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임직원이 외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상되는 경영환경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해외사업부문에서는 기존 환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내년도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수출단가를 인상하는 가격조정 정책(Price Variation Policy)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 결제통화를 당사에 유리한 통화로 조정하는 거래 통화변경 전략(Currency-of-Invoicing Policy), 수입결제와 수출네고를 일치시키는 매칭(Matching), 수입대금의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등 영수자금의 청구를 지연시키는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그리고 환변동 보험 부보 등의 대내외적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재경부문에서는 환리스크 관리의 중심에 서서 선물환 거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임직원이 외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상되는 경영환경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Forwarding Transaction)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외적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획부문에서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원의 선정 및 교육을 강화하고, 당사에 적합한 환리스크 관리방안의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컨설팅회사와의 자문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약대책이 강력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공장 등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생산기지 정책을 경영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더욱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익한 경제상식 한 토막을 알아보기로 하자.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금과 현물의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금으로 대체코자 하여 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은 보유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존코자 하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보유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여기에 투기적 요소까지 가세하게 되면 금의 국제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여유 돈이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을 사재기(?) 하여 을유(乙酉)년 새해에는 대박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심이 어떠실지?

약달러 시대를 사는 오늘 문득 생각나는 단상(斷想)이다.

## 2004년도 “韓國中小企業經營研修” 연수 일정을 마치고...



경영환경팀 박전옥 차장



지난 11월28일(일)부터 12월4일(토)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당사를 포함한 총 15개업체의 관리부서 차·부장급 직원이 일본 중소기업경영관리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만났다.

몇 번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외국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야지 다짐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오늘 또 똑같은 다짐을 자신에게 해본다.

첫 날 하네다 공항에서 호텔에 도착한 후 환영리셉션이 진행되었다. 환영 리셉션 중에 단원간의 친교를 위한 각자의 회사소개와 자기소개가 이어졌는데 상투적인 틀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꿈”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날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해성광학에 근무하는 장유식 부장으로 현재 36세인데 청년까지 100억을 만드는 꿈을 이야기해 연수 내내 별명이 100억 광학이었다.

나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나이 때문에 단장으로 선출되어 “연수기간 동안 여러분의 확실한 일꾼이 되어 재단에서 처음 선발된 여성 연수생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노라.”라는 소감을 발표해 모든 이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일본 연수의 첫날을 마무리했다.

11월29일(월)부터 시작된 일정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뻘뻘하게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일본의 회사인 株式會社 吉岡精工은 종업원 35명이 연간 매출에 520억엔의 매출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종업원 10명당 1억엔의 매출을 하였고, 주거래업체의 의존도가 97%나 되는 전형적인 친족중심의 회사였다. 그러나 현재 사장의 취임으로 친족우선형 기업에서 평등하고 보람 있는 제안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 생산이 곧 즐거움이다.”라는 것으로 전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제품생산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려는 株式會社 吉岡精工의 노력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두 번째로 방문한 TAKUMA 精工은 종업원 36명의 직원이 인당 18억엔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로써 설계기술 12명, 생산제조 16명, 영업판매 6명으로 구성되어 전 직원이 생산과 기술, 영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방문한 오타쿠시(大田)에 있는 株式會社 三和電機는 동경 23구중에 제일 큰 시로 우리나라의 인천 남동공단과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주요생산품으로 압력 스위치, 진공 스위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50명이 거래업체 5,000여 곳에 납품하고 있다. 전 직원이 설계와 제작을 겸한 다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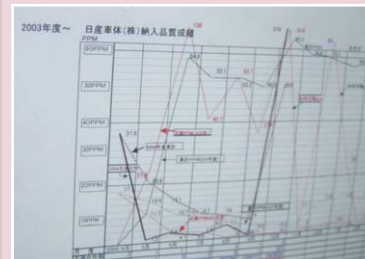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과 기능이 동시에 충족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실제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설비를 제작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등의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양천철공소는 당사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창업주의 정신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어서 웬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진 곳이기도 하다. 초대 사장은 현 사장의 부친으로서 집을 만드는 회사에서 함석쟁이로 불리었다고 한다. 일본 기와지붕의 철판을 제작하는 회사로 시작하여, 1952년에 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해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도 당사와 같이 주거래업체의 단가인하 요구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주 납품업체인 닛산 그룹에서 리바이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당시 닛산 자동차의 직접 거래처 1200개사를 600개사로 줄이는 NRP계획을 실행했다. 그 프로그램은 3년간 원가 20%를



삭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당시 양천철공소에도 3년간 원가 25% 삭감을 요구해 왔다. 그 요구로 업체와의 협력 하에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이 이루어지자 또 다른 N-180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며 더욱 코스트다운을 요구해 왔다.

주거래업체의 요구에 살아남기 위해 ISO 9001, ISO 14001 등 품질 개혁을 실시하였고,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역화를 추진하고 종업원 조직을 개선시켰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한다.”라는 회사의 모토와 신념으로 종업원 85명 중 50%를 시간제, 그중 60세 이상이 50%였다. 현장 계시판을 통해서 개인별 불량 개선표 작성, 로봇 6대 투입, 스폰 용접 로봇, 중량 150kg까지 로봇이 이동하는 등의 자동화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불량을 개선 활동을 해나갔다.

이 회사는 코스트 다운이라는 향후 대책으로 로봇활용 확대, 고용 형태의 변화 등으로 경상이익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고평가와 미숙련

자라도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동화, 표준화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변화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회사방침인 ACT Y CAP은 ACT(활동 activity) Y (Yukawa 양천 공작소) C(Creative 창조적) A(Action 행동) P(Production 제작), CAP (Captain 달성)으로 “활동하는 양천공작소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공장 주변의 굴나무가 자연친화형 공장으로 느끼게 해주고 가족이 함께하는 회사의 모습이 “태양금속과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나의 인상에 남았던 것은 서투른 한글로 우리 연수단 일행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로 더욱 정감 있게 느껴졌다.

3일간의 업체견학, 3일간의 팀별 교육 등 6일 동안의 짧은 연수가 모두 끝나면서 10년간의 장기불황을 이겨내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본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또한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한일 재단의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기회에 선발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벽시장의 분주함과 활기참으로 시작하는 부서 업·체·협·력·팀

외딴 섬마을처럼 강한 파도와 바람에 고덕 없는 강인한 부서  
밤낮을 구분하지 않는 부서  
새벽시장의 분주함과 활기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서  
바로 업체협력팀이다.

태양금속의 외딴 섬마을 같은 부서 업체협력팀은 섬마을이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이겨내며 살아가듯 회사에서 칼바람 같은 제품 수급 독촉과 외주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많지만 이런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마무리했을 때 희열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팀의 업무는 영업 및 생산관리의 작업지시에 의해 제품을 협력업체에 납품 의뢰하여 제품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무엇보다 13명의 직원이 82개의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사무실 문이 수백 번 이상 열리고 닫히다 보면 새벽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분주하지만 이로 인해 사무실은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이 팀의 사우들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수가 많을수록

제품의 입고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사무실 문이 가만히 있을 때 더 불안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을 하다보니 퇴근 시간 또한 일정치 못한 편이다. 이 팀의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이다. 이는 급히 납품되어야 할 제품을 협력업체에서 밤늦게나 새벽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출근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 팀에는 노총각 들이 딴 팀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근 10년 동안 결혼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팀은 회사 경영목표 이외에 또 다른 2005년 팀의 목표가 “총각을 줄이자”이다.

# 활기찬 업체협력팀 식구들은



정동찬 부장은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네~ 수고 많아요!”라며 부서원들을 독려하는 업체협력팀의 수장으로 가끔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얼마 전 제품관리과에서 업체협력팀에 발령받아 오신 박영석 차장은 수덕한 웃음으로 열 집 아저씨처럼 부서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



한상운 대리는 외모로 볼 때 듬직하고 묵묵해 보이지만 회식자리나 부서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사우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한다.



영동한 돈키호테 같은 추연근 대리는 부서원들의 작고 사소한 것 하나 하나 챙겨주는 여성스러운 면과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



부서의 조용맨 윤태일 주임은 말수는 적지만 소리 소문 없이 부서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멋진 사나이다.



결투를 능가하는 언어의 마술사인 김한웅 주임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된장 같은 웃음을 선사해 주는 웃음맨이다.



김승일 사우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을 하여 부서원들이 금방이라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놓는 부지런맨이다.



자동차 번호판 “2000”만 봐도 태양금속 전 직원이 알아보는 이준영 사우는 팀에서는 조용하고 묵묵히 일하는 성실맨이다.



이주호 사우는 “안전운전 나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내 주행 8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고 운전 중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안전 수칙맨이다.



변관홍 사우는 편안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부서원 및 업체협력팀 사람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기맨이다.



박태홍 사우는 애교면 애교, 카리스마면 카리스마 팀의 보좌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재무담당 이사이다.



조혜진 사우는 팀의 막내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알아서 솔선수범하는 착한 여동생 같은 귀염둥이다.



김선호 사우를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 직원이며, 앞으로 업체협력팀을 이끌어갈 인재이다.







## 세상의 등불이 되는 사랑스런 가족



비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 밖을 보니  
구름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벼를 삼으니 축복 받게 하소서  
희망의 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게 행운을 내리소서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나누리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긴 밤들을  
보람되도록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 등불이 되리



공정기술과 손용각 과장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나면서 세 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집안에서만 생활해온 아이들 엄마. 아이들 셋 키우느라 쉴 틈이 없었죠. 올해 들어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오전에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운동한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조금 찾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기에 오후에는 또 분주해지죠. 가끔, 아주 가끔, 예이~~~ 솔직히 어찌다 한번 아이들보고 집 보라고 하고 둘만이 잠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들어오면 한참을 즐겨워 합니다. 아직 만족스러울 정도로 행복을 주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큰딸, 이제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남의 집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본 적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 큰딸이라고 열심히 집안일을 가르칩니다. 아빠의 영터리 교육법으로 고생(?)하고 있죠. 밥하기, 라면 끓이기, 설거지하기, 아빠 커피 타오기 등등.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영터리 교육법에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이들 엄마와 둘이서만 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동생들 밥 챙겨주고 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밤 12시쯤 돌아와 보니 자고있더군요. 주방에 설거지도 다 하고 안방에 이부자리도 깔아놓고 이렇게만 자라줬으면 합니다. 미래에 해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네요.



둘째 딸, 이제 10살인데 언니와는 대조적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죠. 일요일엔 아침부터 교회에 가서 점심 먹으러 한번 들어오고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낸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으로 무척 바쁜 모양입니다. (대사도 없다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 하듯이 공부 좀 했으면 합니다. 꿈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라면서 공부는 안 하네요.

막내이며, 하나뿐인 아들, 7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집은 이 아이 때문에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죠. 손에 닿기만 하면 고장 나거나 부서집니다. 조금 더 자라면 나아지겠죠.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집안의 대들보로 키워봐야죠.

이렇게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살아보려 노력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가족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 기울어가던 회사를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칭찬’은 더욱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만큼 칭찬은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요인이지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희 회사 분들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200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표면처리과 | 황병수 직장

태양금속의 직원으로 열심히 일해 온 황병수 직장은 30년 동안 후배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을 다해오고 있다. 올 5월이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황 직장은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후배양성에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기에 26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 제품관리과 | 유대환 조장

제품 하나 하나에 애정을 쏟으면서 제품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환 조장은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항상 웃는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사우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에 27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 생산2반 | 이평희 대리

강한 리더십으로 사우들에게 목표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통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사우들을 독려하는 이평희 대리는 평안한 선배이자, 형님이자, 회사 상사로써 사우들이 직장생활을 즐기며 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기에 28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 금형과 | 김동영 반장

일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사우들에게 모범이 되고 일을 맡으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김동영 반장이 29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 설비기술과 | 김영창 반장

후배들을 챙겨 주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운 사람... 호탕한 성격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엔터테이너. 꺼려하는 까다로운 업무도 서슴없이 나서서 처리하는 도전정신이 아름다운 김영창 반장이 30번째 칭찬 주인공입니다.

26  
27  
28  
29  
30



## 새로운 우리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3. 학교명 4. 스트레스 해소법 5. 취미 6. 취미 7. 별명과 이유 8. 자신을 평한다면(나는 이런 사람이다.) 9. 매력 포인트 및 PR 10. 첫 월급으로 뭘 하고 싶은지 11. 앞으로의 계획이나 회사에 바라는 점 12.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 13. 로또에 당첨된다면 14. 교육기간 동안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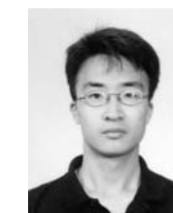


1. 김도형 1977년 8월 10일 (A형)  
2. 품질보증팀  
3. 삼척대학교  
4. 볼륨 높여 음악듣기, 때때로 술 마시고 잔다  
5. 1병부터 4병까지(소주2홉

기준)

6. 낚시, 스키, 장난감 조립, 요리  
7. 도치(쌍둥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때까지  
8. 성실하고 멋진 강원도 새나미

9. 늘 웃는 미소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10.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전부 저금에 넣을 생각  
11. 입사 후 첫 번째 계획은 4년 안에 집 장만 하기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회사로부터 동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갈고 닦을 생각  
12. 열심히 살아나갈 테니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13. 전액을 부동산으로 구입. 후세들을 위해..  
14. 짧은 기간이었습니 다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이문제 1977년 9월 9일 (A형)  
2. 기술개발팀  
3. 경상대학교  
4. 마라톤/ 싸이클/ 음악듣기  
5. 소주1병, 맥주 3병(정중이 가장 좋은 술이라고 생각함)

6. 싸이클/우표수집  
7. 트러브럼- 배낭여행 갔을 때 생긴 별명  
8. 항상 노력하고 분발하는 열성파 !!  
9. 작은 목표를 크게 키워 큰 수확의 기쁨을 일구어 낼수 있는 자, 바로 접니다.  
10. 저축~~ 또는 부모님께 봉양  
11.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2. 잘 부탁드립니다.  
13. 그 돈으로 다시 로또 구입  
14. 개인적으로 몰랐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였음.



1. 조원준 1978년 9월 18일 (AB형)  
2. 기술개발팀  
3. 동의대학교  
4. 뭐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 (주로 운동, 노래방에

서 과성지르기)  
5. 정확히 잘 모름(소주 2병정도?)  
6. 볼링, 게임  
7. 천국이(호기심이 많아서)  
8. 90점 만점에 70점인 사람입니다. 부족한 30점은 앞으로 9년 안에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남보다 조금 성실한 편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  
9.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함, 유머가 많지는 않지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10. 지난달 7만원정도 났는데 아직 그대로 있음  
11. 앞으로 알하는 기술개발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회사에 +요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2. 정말로 백지상태라고 생각하면 뭘텐데, 그 백지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전부 부모님 드리겠습니다.  
14. 교육을 통해 회사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좀더 자세한(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최승준 1978년 9월 7일 (O형)
2. 기획팀
3. 중앙대학교
4.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들으며 소리 지르기
5. 소주 1병

6. 인라인 스케이트, 스노우 보드  
7. 구영탄(고등학교때 눈이 쫓겨 보인다고 붙여 줌)  
8.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임  
9. 엉뚱한 사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10. 부모님 선물사고, 옷한벌 사고, 친구들에게 한턱 내고 나머지는 저금  
11.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하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것임.  
12. 친한 형들처럼 잘 지내고 싶고, 모르는 것 물어봤을 때 잘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3. 세계일주, 부동산 매입, 저금  
14. 학교를 졸업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생겼습니다.



1. 이병규 1978년 8월 13일 (O형)
2. 재경팀
3. 수원대학교
4. 한강구경(바다는 너무 멀잖아요)
5. 소주 1병

6. 운동  
7.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200권, 이백호, 코재, 독수리, 수비핵, 룡다리 등등  
8. 의리와 신뢰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가면 돈 관리는 다하고 약간 끈기가 부족 함  
9. 눈이 매력 포인트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킴  
10. 아버지 30만원 어머니 30만원 원XX 이비후과 선생님 선물 만원, 나머지 친구들과 술 한잔  
11. 아직 회사에 바라는 것 없고, 앞으로의 계획은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게 목표  
12. 주위에 관참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잘 되면 술 한잔 사드리고요. 잘 되서 결혼까지 가면 정말 한 벌 해드릴게요.  
13. 5로 나누어서 아버지, 어머니, 나, 여동생, 남동생 골고루 나눠가짐  
14. 일하시는 분들의 인상이 밝아보여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됨.



1. 이수용 1979년 4월 18일 (O형)
2. 경영환경팀
3. 계명대학교
4.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신나게 소리 지르기
5. 소주 1~2병

6. 컴퓨터 게임  
7. 너구리 이유는 친구들이 너구리와 많이 닮았다고

함  
8.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Good Man 이라고 할 수 있음  
9. 깔끔한 매너와 겉모습과는 다른 부드러움  
10. 부모 형제 선물, 친구와 선배들과의 술한잔, 남은 것은 모두 저금 통장  
11. 지금 현재는 모두가 만족스러우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임  
12. 혹시나 제가 업무상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여쭙어 보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  
13.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  
14. 학생으로서가 아닌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음.



1. 김선호 1976년 5월 18일 (A형)
2. 업체협력팀
3. 중앙대학교
4. 운동
5. 소주 1/2병
6. 운동

7. 곰(힘이 세다)  
8.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9. 남자다운 성격과 강한 생활력 및 체력  
10. 저금(저축)과 부모님 선물  
11. 사명감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며, 책임을 완수 할 것임.  
12. 잘 부탁드립니다.  
13. 부모님께 모두 드린다.  
14. 무엇보다도 입사한 동기들과 서로 친해지고 학교에서 받지 못했던 사회교육이 내 직장 생활과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1. 남궁운진 1980년 4월 22일 (A형)
2. 구매팀
3. 안산공과대학
4. 노래방을 간다.
5. 소주 1병 반

6. 음악감상  
7. 남궁(성이 특이해서~)  
8.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9. 로맨틱하다  
10. 부모님 선물을 사드린다.  
11. 최대한 업무 파악을 하겠음  
12. 사랑합니다.  
13.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사회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음  
14.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음.



1. 신중국 1977년 8월 18일 (B형)
2. 생산기술팀
3. 중앙대학교
4. 운동
5. 소주 1병
6. 운동

7. New China(이름 때문에)  
8. 나는 부지런하고 활발한 사람임  
9. 사람들과 잘 어울림.  
10. 부모님 선물사드리고 싶음  
11.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음  
12. 첫 직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3. 멋진 스포츠카 한대 뽐냈음  
14.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교육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준 좋은 경험이었음.



1. 최용창 1977년 5월 21일 (A형)
2. 해외사업팀
3. 동아대학교
4. 노래부르기
5. 소주 1병
6. 등산

7. 쓸데없는 어깨 (어깨만 넓어서)  
8.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9. 목소리가 선명  
10. 부모님 숙내의 사드리고 싶음  
11.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음  
12. 부족함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3. 로또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임.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집 마련, 나머진 아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줌  
14 회사에 대해서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꼈음.



1. 김도형 1978년 6월 21일 (B형)
2. 품질관리팀
3. 울산대학교
4. 소리 지르기, 게임하기
5. 소주 2병
6. 스타크레프트

7. 특별한 것 없으나, 여러 연예인 닮았던 소리 들음  
8. 재미있는 사람  
9. 재치로 승부한다.  
10. 도움을 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11. 회사 발전에 주도적 역할 하고 싶음  
12.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13. 엔초페라리 구입, 부모님께 효도, 주위사람에게 봉사  
14. 사회생활 첫발을 딛는 저에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음



1. 박찬현 1979년 7월 16일 (B형)
2. 생산관리팀
3. 경남대학교
4. 축구 및 스포츠 관람
5. 소주 1병 반
6. 인터넷 검색, 축구

7. 뺑 찬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 '뺑 찬'이라 부름)  
8.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10. 목적함  
10. 부모님께 뺑간 내복 선물, 최신형 휴대폰 구입  
11. 부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12. 피부리지 않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13. 교회에 헌금, 남은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  
14.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힘든 시기가 오기 마련임. 연수 받는 동안 긍정적 Mind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면 힘든 시기도 견딜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됨.





# 鷄

## 새벽을 알리는 닭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이다. 예고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닭은 태양의 새이다. 닭의 존재 양상의 이중성, 즉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닭은 영기가 많은 천조이고, 태양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닭의 울음을 통해서 새벽이 온다는 속신들은 닭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예지적인 동물임을 암시한다. 밝음을 알려주는 닭은 그런 점에서, 어둠 속에서 활동 하는 음귀를 쫓아내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상징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닭은 길조???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가리키듯이 닭은 서조인 꿩을 대신하는 길조로 인식되어 왔다. 남자들은 흔히 처가에 다녀온 친구에게 “찌암닭 몇 마리나 먹었어?” 하고 농담을 한다. 이처럼 닭은 귀한 손님에게나 대접하는 것이어서 집안의 잔치나 혼례에서는 닭이나 계란을 사용한다. 설날에는 떡국에 닭을 넣었고, 혼례 초례상에 닭을 청홍보에 싸서 놓았으며, 폐백에도 닭을 사용한다.

이처럼 닭이 중요한 행사나 새해 첫 음식에 쓰여진 것은 길상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닭은 자양분이 많기 때문에, 영계 백숙과 닭 속에 인삼, 대추, 참쌀 등을 넣고 통째로 곤 삼계탕을 보신용으로 먹기도 한다.

### 닭띠 중 유명한 사람들

마리아 메디치, 교황 바오로 6세, 리셀리의 괴 벨, 클레베, 바그너, 윌리엄 포크너, 데카르트, 카루소, 스티븐 포스터, 제임스 쿠퍼, 캐서린 햅번, 데보라 카



# 鷄

닭띠들의 합창

## 닭띠 32명이 말하는 2005년 소망



**경영환경팀 조정희 사우**

나는 57년 닭띠이고 우리 아들은 8년 닭띠이다. 그 만큼 나는 닭띠와 인연이 깊다. 내가 아들을 낳기 전에 태몽을 꾸었는데 아주 큰 닭이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 왔 듯 우리 아들은 지금 큰 닭이 되기 위해 열심히 날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태양금속에 들어와서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2005년에는 닭띠의 해 인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태양이 뜨면 닭이 울듯이 회사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경영환경팀 한복희 사우**

닭띠의 축 처진 깃털을 새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2005년은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경영환경팀 김옥중 사우**

2005년에는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길... 그리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영업본부실 길선옥 사우**

민음 · 소망 ·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05년이 되길 바란다.



**설비기술과 신호영 직장**

올유년엔 모두들 건강합시다.



**설비기술과 김도일 반장**

닭들도 날 수 있는 한해 닭띠가 보여준다.



**설비기술과 이두우 사우**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생산2반 전병호 반장**

항상 웃음이 넘치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 하면서~~



**생산2반 조태옥 반장**

밝아 오는 올유년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열처리과 송병천 반장**

올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제품관리과 김광수 사우**

올유년 새해에는 작년에 못한 일을 꼭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품질관리팀 아신자 사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자.



**영업본부실 조미옥 사우**

2005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6반 박은선 사우**

모든 닭띠들 파이팅하며 한해를 성취합시다.



**품질관리팀 강종숙 사우**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생산6반 이은미 사우**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생산6반 서래원 사우**

올유년을 맞아 띠 동갑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할까 합니다.



**품질관리팀 윤태호 사우**

닭띠 믿으로 다 줄~서! 나는 빠른 닭이다.



**품질보증팀 이순주 사우**

2005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순주'가 기도해드릴게요 ^ \_ ^;



**생산6반 박태중 사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좋은 인재가 되겠다.



**기술개발팀 송태업 대리**

가족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2005년을 보낼 수 있도록..년 초에 계획된 일의 성취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생산5반 이재용 사우**

좀더 분위기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길~~



**열처리과 김대형 사우**

건강하고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겠다.



**공정기술팀 홍완기 반장**

모든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깃들길...



**열처리과 최화섭 사우**

새해에는 장가를~~



**열처리과 김정훈 사우**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산2반 임재석 사우**

잘 먹고 잘 살자!



**제품관리과 최응덕 사우**

열심히 잘 살자! ^^



**품질관리팀 구지완 반장**

새로운 도전, 목표 달성을 하는 한해.



**기획팀 최현숙 사우**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울산영업소 최용권 차장**

2005년에는 가정이 편안하길 바라며, 회사는 목표 달성을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하는 회사가 되길..



**울산영업소 김영식 주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며, 회사에서는 불량이 없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 Monkey

## 원숭이의 재주

서커스단 동물 중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것은 원숭이었다. 앞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렵한 몸매가 언제나 원숭이의 자랑이었다. 원숭이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같은 서커스단 동물인 코끼리의 코를 보고 늘 이렇게 흥을 보았다.

“아이들 즐겨 부르는 동요에도 나오지만, 너는 그 코흘리게 코가 그래 진짜 손이라도 되니? 코로 아이들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다니, 참 안 됐다. 너는 그리고 그 코를 제대로 씻거나 하니? 난 네가 물 속에 텀벙 코를 집어넣는 건 봤지만 앞발로 비벼 깨끗하게 때를 씻어내는 건 보질 못했다.”

원숭이의 말에 코끼리는 ‘흐응’ 하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

“네 앞발보다 내 코가 더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단다.”

“그게 뭤데?”

“무거운 통나무 드는 거.”

“미련 맞게 그런 무거운 통나무는 왜 드니? 나처럼 줄 타는 재주 하나만 있으면, 먹고 시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원숭이는 그러면서 문득 고향인 남아프리카 열대의 야자 숲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포획망을 설치해 원숭이들을 마구 잡아갈 때, 다른 친구들은 더 깊은 숲 속으로 도망을 쳤지만 그는 호기심 때문에 기웃거리다 포획망에 갇혀버렸다.

그 후 원숭이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며 자기도 감히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래서 사람을 ‘털 없는 원숭이’라고 부르며, 자신도 원래는 사람과 조상이 같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잡혀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원숭이는 서커스단 단장한테 칭찬을 받았고, 맛있는 바나나를 제공받는 것이 늘 즐겁기만 했다. 무대에 나가 줄타기 재주를 부리고 나서 인사를 할 때, 아리따운 소녀가 던져주는 바나나를 받아먹는 것이 야말로 정말 황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아직도 열대 야자숲의 나무 위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불쌍하게 생각됐다.

그런데 덩치만 큰 코끼리는 늘 고향인 인도 생각만 하며 눈물을 절끔거렸다. 원숭이는 그걸 보고 또 놀려댔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는 덩치만 컸지 생각이 좁아. 사람



들한테서 네 고향 인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긴 소한테나 천국인지 다른 동물들에겐 지옥이나 다름없데, 고향에 가봤자 일만 죽도록 하다 죽는 거야. 그래, 너 거기 가서 코로 무거운 통나무나 나르면서 살고 싶니?”

“원숭아! 너는 재주는 많은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물론 여기 서커스단에서 재주나 부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도 많이 받으니 좋겠지. 그러나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 미치겠다. 요즘은 고향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

코끼리의 말에 원숭이가 꺾충 뛰어 코끼리 등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러니까, 코끼리 너는 미련하다는 거야. 나는 요즘 사람이 되는 꿈을 꾸단다. 나처럼 좀 고상한 생각을 해봐.”

“너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될 수 없어. 그것만 알아둬. 누구나 생김대로 노는 거야. 원숭이면 원숭이답게 놀아.”

코끼리의 충고에 원숭이는 발악 성질을 냈다.

“야, 코끼리! 너나 네 코의 생김새처럼 놀아라. 인도 가서 무거운 통나무나 실컷 나르는 게 너한테는 제일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될 거야. 요즘 나는 팬이 하나 생겼다. 예쁜 소녀지. 매일 삼촌을 줄라 서커스 구경을 오는데, 그 소녀는 쇼가 끝날 때까지 나만 쳐다보고 있어. 쇼가 끝나면 무대 뒤로 찾아와 꽃다발도 주고, 맛있는 과자도 주고 그러지. 나는 그 소녀를 친구로 만들고 말거야.”

“꿈 깨라, 꿈 깨!”

코끼리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또 ‘흐르릉’ 코웃음을 쳤다.

다음 날 쇼를 할 때였다. 원숭이의 줄타기 묘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주 높은 공중에서 원숭이는 자유자재로 놀았다. 가는 줄 위에서 공중

돌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경중 뛰어 떨어지는 척하다가 앞발 하나로 줄을 잡아 위기를 모면하는 묘기도 보여주었다.

그런데 다음 차례 준비를 하고 무대 뒷 편 출입구에 나와 있던 코끼리는, 원숭이의 쇼가 전 같지 않고 무척 불안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숭이의 눈길에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었다. 바로 어제 원숭이가 팬이라고 말했던 관중석 맨 앞줄의 소녀에게 wink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 줄이나 잘 탈일이지 wink는 무슨 일어 죽을 wink야? 원숭이 주제에.”

코끼리는 늘 원숭이에게 놀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속으로 이렇게 비꼬아주었다.

바로 그 때였다. 원숭이가 줄 위에서 공중돌기 재주를 넘다가 그만 앞발로 잡아야할 줄을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관중석에서 ‘아앗!’ 하는 소리가 터졌다. 그리고 잠시 후 또 관중석에서 ‘휴우’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깜짝 놀란 코끼리는, 그 때서야 눈을 떴다. 자신의 코 위에 원숭이가 얹혀 있었다. 코끼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대로 뛰어 나가 떨어지는 원숭이를 코로 받아냈던 것이다. 정말 위기일탈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관객들은 그것도 원숭이와 코끼리가 함께 하는 쇼 인줄로 알고 열광의 박수를 보낸 것이었다.

쇼가 끝나고 나서 원숭이는 서커스단 단장에게 뒤통 야단을 맞았다. 그리고 코끼리는 매우 칭찬을 받았다.

그 날 밤 원숭이가 코끼리에게 찾아와 말했다.

“야, 코끼리!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 코는 우스운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손이야. 그 동안 너를 놀려댄 것 사과한다.”

“네 톱구멍이 왜 빨간지 이제 알았다. 네 조상이 나무 위에서 재주 부리다 떨어져 가시나무에 엉덩이를 찔렸기 때문이야. 그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조상 대대로 빨간 톱구멍이 된 것이지.”

코끼리가 이렇게 놀려댔다.

원숭이는 이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꽃다발을 갖다 준 소녀와 친구가 되겠다는 꿈도 버리고, 코끼리와 영원한 친구가 되길 맹세했다.

임광웅/이야기사랑방(<http://novelky.home.dreamx.net>)



# 몸의 피로를 푼다. - 온·천·여·행



서늘한 겨울바람에 지치고 움츠렸던 몸을 확 펴고 따뜻한 온기를 몸 전체적으로 느끼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일상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온천여행이다.

‘목욕은 한 첩의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목욕의 건강효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온천 여행은 건강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명승지나 관광지가 있어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상당수 온천이 수영장을 함께 개설해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에서 튜브타고 물장구를 칠 수 있다. 남녀 따로 온천욕을 한 뒤 수영복을 입고 다시 만나 수영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좋다.

## 명승지가 있는 온천 - 온양온천

온양온천의 특징은 지질이 단상흑운모, 각섬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용출되는 온천수의 수온이 57℃ 내외로 고열온천수로 온천수의 주요 성분은 마나타온을 함유한 라듐온천이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이자 온천지역 최대의 명소로 1300여년전 백제때부터 온천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1442년 세종대왕이 온양온천 행차시 온양군으로 개칭된 후 그 이후 온양으로 불리어져 왔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15년(1433년) 정월에 안질 치료차 행차 한후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께서 온궁을 짓고 휴양이나 병의 치료차 머물고 돌아간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현종사를 비롯하여 부근에 외암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등 볼거리도 많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산에 위치한 스파비스는 국내 최초로 온천과 물놀이 시설을 연계하여 가족용 온천을 시도하여 가족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 자가용 이용시

1. 안산 → 경부고속도로 → 천안나들목 → 국도 21호 (20km) → 온양온천
2. 안산 → 서해고속도로 → 서평택나들목 → 안중산업단지 → 아산민방조제 → 국도 39호 (28km) → 온양방향 → 온양시내초입에서 우회전 → 온양역방향 → 온양온천

## 산행(설봉산)과 도예촌을 즐길 수 있는 온천지 - 경기도 이천온천



이천온천은 5백년 이어온 유서깊은 온천으로 한 농부가 사시사철 솟아나는 더운 샘물을 기이하게 여겨 눈을 씻었더니 눈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온천이 발견되기는

1870년경이다.

이천온천은 나트륨함량이 많아 각종 피부질환, 피부미용, 신경통, 부인병, 임산부 산후조리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약수영천으로 음료로 마시면 위장병에 좋은 효과가 있다. 수질은 단순천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성분은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마그네슘 등인데 특히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습진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 신경통, 부인병, 눈병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온은 섭씨 30도 내외로 양질의 온천수가 분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천욕이 가능한 숙박업소는 미란다 이천호텔과 설봉호텔, 일반호텔 실버 3곳이다.

특히 미란다 호텔은 스파플러스를 개장해, 전천후 온천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야외온천장과 실내 온천수영장 등 대규모 온천시설이 있어 가족단위의 온천욕을 할 수도 있다. 낮에는 온천을 한후 객실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저렴한 패키지까지 구성해 놓고 있다

## 자가용 이용시

1. 안산 →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이천C → 이천
2. 안산 →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이천C → 이천
3. 안산 →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 도예촌 → 이천
4. 안산 → 성남시, 하남시 → 광주군 3번국도 → 이천

## 눈과 몸이 즐거운 온천지 - 충북 단양 유황온천



동양의 4대 유황온천 중 하나인 단양 유황온천은 아직 온천지구로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지하 648m의 깊이에서 하루 3천500톤 가까이 솟는 온천수는 수온 27℃, 아연이 다량 함유 되었

고, 달걀 삶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유화수소천이다. 신경통·류머티즘·관절염·병후 회복·허약체질·해열진통·피부미용·만성 부인병 등에 효과가 있고, 변비·비듬·소화불량·기관지염 등의 치료에 좋다고 한다. 현재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곳은 단양유황온천탕 한 곳 뿐이다. 지난 1993년 9월 개장 이후 평일 300여명, 주말에는 500명 정도 찾고 있으며 주변에는 묘적봉과 황정산·도락산 그리고 유명한 단양팔경 등의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어 눈과 몸을 한껏 즐기고 올 수 있다.

## 자가용 이용시

안산 → 중부고속도로 → 천안나들목 → 단양방향 → 대강삼거리 → 사인암방향으로 좌회전 → 사인암리에서 소백사관광목장방향으로 좌회전 → 지로리 → 덕천리 삼거리에서 장정리방향으로 좌회전(직진에 가끼음) → 장정초등학교 → 남조리 → 단양 유황온천

## 눈꽃 내린 설악산 보며 노천욕 - 설악온천



수온 53℃, pH 9, 설악산국립공원의 설악동과 속초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설악산 관광개발의 시작과 더불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966년 12월 지하 50m 지점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려 개발하였다. 단순천으로 무미·무취이며 감촉이 매끄럽다. 피부병·신경통·류머티즘·충치 등에 좋다고 한다. 깨끗하고 현대화된 숙박업소 및 온천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악온천에서 가장 가볼만한 온천장은 국내 최초의 온천 물놀이 시설로 하루 3천여 톤씩 쏟아져 나오는 섭씨 40도의 온천수를 활용한 설악온천 워터피아로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는 노천탕과 고대 로마의 대욕장인 카타칼라를 연상시키는 남녀사우나장, 인공파도를 일으키는 폭 15m, 길이 40m의 실내 파도풀, 계곡타기 기분을 느끼는 유수풀, 운동과 오락을 동시에 즐기는 각종 액션스파와 규격풀, 액션풀, 튜브 및 바다 슬라이더 등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자가용 이용시

1. 경부(중부)고속도로 → 호법C → 영동고속도로 → 현남C → 7번국도 → 양양 → 속초 → 설악워터피아
2. 서울 → 미사리 → 팔당대교 → 양수리 → 양평 → 홍천 → 인제 → 원통 → 용대리 → 미시령 → 속초 → 설악워터피아



## 사 · 우 · 동 · 경

##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업본부실 박영훈 사원/ 생산2반 남기춘 사원/ 해외사업팀 박지만 사원/ 영업본부실 남궁진호 사원/ 생산6반 박태중 사원/ 기술개발팀 이문재 사원/ 경영환경팀 이수용 사원/ 품질관리팀 김도형 사원/ 기술개발팀 조원준 사원/ 품질보증팀 김도형 사원/ 생산관리팀 박찬현 사원/ 생산기술팀 신중국 사원/기획팀 최승준 사원/ 해외사업팀 최용창 사원/ 재경팀 이병규 사원/ 업체협력팀 김선호 사원/ 구매팀 남궁윤진 사원

## 승진 및 전보

## 10월7일자

곽병삼 반장 경영환경팀에서 생산2팀 표면처리과 전보

박정석 조장 경영환경팀에서 생산1팀 생산6반 전보

현형수 사원 경영환경팀에서 영업본부실 전보

## 10월14일자

이창섭 직장 공장합리화 TFT에서 구매팀 전보

## 10월22일자

강종규 사원 생산관리팀 생산지원에서 품질보증팀 시험실 전보

## 11월4일자

주영이사 리모델링 프로젝트 TF팀 PM겸무, 손용각 과장, 최성규 과장, 유상호 주임, 문동배 주임, 최갑영 주임 리모델링 프로젝트 TF팀 전입팀원, 원영철 차장, 김종훈 과장, 이평희 대리 리모델링 프로젝트 TF팀 겸입팀원

## 12월1일자

권영찬 · 윤용주 조장 업체협력팀에서 경영환경팀 경영지원

임대순 사원 구매팀 원재료에서 생산1팀 생산6반

## 12월6일자

한호춘 직장 생산기술팀 금형과장

박장선 · 백인환 사원 금형팀에서 구매팀 전보

김영서 · 김아롱 사원 금형팀에서 생산기술팀 금형과 전보

## 12월 8일자

김성윤 · 이영하 · 박성열 사원 생산관리팀 생산지원과에서 경영환경팀 경영지원 전보

## 12월13일자

이지영 부장 해외사업팀장에서 북미지사장

박문호 부장 해외사업팀장 명

유대환 조장 생산관리팀 생산지원과에서 생산1팀 제품관리과 전보

정영석 사원 생산팀 표면처리과에서 생산1팀 생산1반 전보

## 승진 및 전보

## 2005년 1월1일자

- 기획팀 김광두 과장, 구매팀 김영준 과장 – 차장 승진
- 생산2과 이종실 직장, 표면처리과 황병수 직장 – 기장 승진
- 업체협력팀 추연근 과장대리, 경인영업소 오제철 과장대리, 해외사업팀 이제영 과장대리, 기술개발팀 문형륜 과장대리, 기술개발팀 강민식 과장대리, 기술개발팀 송태엽 과장대리, 재경팀 최동배 과장대리 – 과장 승진
- 제품관리과 조병기 직장대리, 경영환경팀 장은수 직장대리, 생산1과 박형식 직장대리 – 직장 승진
- 울산영업소 김영식 주임, 호남영업소 위순량 주임, 생산지원과 조진수 주임, 경인영업소 허제 주임, 기술개발팀 선우현희 주임, 경영정보팀 박상균 주임, 기술개발팀 손성식 주임, 경인영업소 최준호 주임, 공정기술과 문동배 주임, 경영정보팀 김동주 주임, 마케팅지원팀 정용훈 주임, 생산지원과 이영석 주임, 재경팀 류영관 주임, 품질보증팀 박재찬 주임, TLZ200PM팀 최갑영 주임, 해외사업팀 박준용 주임 – 대리 승진
- 열처리과 송병천 반장, 생산2과 이완배 반장, 생산2과 신남균 반장, 금형과 김동영 반장, 표면처리과 유흥용 반장, 금형과 이한희 반장 – 직장대리 승진
- 생산1팀 이광민 사원, 업체협력팀 이준영 사원, 업체협력팀 이주호 사원, 생산관리과 이정한 사원, 재경팀 김광섭 사원, 업체협력팀 김승일 사원, 구매팀 임규완 사원, 경인영업소 배인승 사원, 기술개발팀 최신동 사원, 생산관리과 김성일 사원, 경인영업소 김용일 사원, 기술개발팀 김용준 사원, 호남영업소 권영기 사원, 품질보증팀 황준식 사원, 기획팀 윤철환 사원, TLZ200PM팀 이익재 사원, 경영환경팀 전보현 사원, 재경팀 권미영 사원, 품질보증팀 조종래 사원, 업체협력팀 변관홍 사원, 해외사업팀 유혁주 사원, 마케팅지원팀 정정식 사원, 경영환경팀 김성진 사원, 기술개발팀 이철호 사원, 기술개발팀 조윤승 사원, 생산관리과 최철용 사원 – 주임 승진
- 제품관리과 이운도 조장, 제품관리과 육만철 조장, 경영환경팀 박근석 조장, 열처리과 김내환 조장, 열처리과 박남수 조장 – 반장 승진
- 경영환경팀 배윤진 사원, 검사와 김도영 사원, 업체협력팀 박태홍 사원, 경영환경팀 장보영 사원, 마케팅지원팀 김경자 사원, 영업본부실 이현미 사원, 품질보증팀 이순주 사원, 울산영업소 윤미정 사원, 기획팀 최현숙 사원 일반직 7급 – 6급 승진
- 제품관리과 양정림 사원, 제품관리과 김명석 사원, 제품관리과 권호동 사원, 경영환경팀 이재운 사원, 금형과 박상덕 사원, 설비기술과 천복남 사원, 경영환경팀 조윤호 사원, 표면처리과 송병호 사원, 구매팀 김철 사원, 열처리과 오수원 사원, 제품관리과 송재성 사원, 열처리과 유동규 사원, 제품관리과 김용호 사원, 금형과 한동민 사원, 생산2과 김태규 사원, 품질관리과 최상익 사원, 검사와 차준성 사원 생산직 7급 – 6급 승진
- 경영환경팀 조현아 사원, 금형과 김아롱 사원, 기획팀 김진경 사원, 기술개발팀 윤순희 사원 일반직 8급 – 7급 승진
- 열처리과 성재구 사원, 제품관리과 정수현 사원, 생산1과 이애란 사원, 제품관리과 김기주 사원, 생산1과 이미숙 사원, 제품관리과 김규봉 사원, 생산1과 곽상구 사원, 경영환경팀 강성실 사원, 표면처리과 설정석 사원, 영업본부실 김강식 사원, 표면처리과 유근영 사원, 생산2과 임대순 사원 생산직 8급 – 7급 승진



## 몽꿈과 로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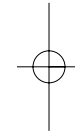
나한테 드림을 알려주는 이는 형이 있다.  
어느 날 밤에 그 형이 꿈을 꿔는데,  
꿈에서 용이 여의주를 6개를 물고 꼬리를 휘감으며  
용천 하는 꿈을 꿔었다.  
그래서, 아침에 로또 산다고 흥분을 하다가  
아침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라면봉지를 뜯었는데,

“너구리라면에서 다시마가 6개 나왔다.”

인생역전 대박이었다..푸하하하

## 각과 교수님들의 싸움때 반응

- |                |                         |
|----------------|-------------------------|
| 1. 경영학과 교수님    | '싸우면 손해다.'              |
| 2. 미생물학과 교수님   | '저런 썩을 놈들...' ..        |
| 3. 의류환경학과 교수님  | '옷 찢어질라.'               |
| 4. 행정학과 교수님    | '경찰불러~'                 |
| 5. 응용통계학과 교수님  | '일주일에 한번 꼴이니..쫓쫓'       |
| 6. 아동학과 교수님    | '애들이 배울라~'              |
| 7. 신방과 교수님     |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거 모르나?'     |
| 8. 중어중문학과 교수님  | '임전무퇴'                  |
| 9. 신학과 교수님     | '회개기도 합시다..아버지..' 그리고.. |
| 10. 영문학과 교수님   | 'Fighting!!'            |
| 11.경제학과 교수님    | '돈 안되는 녀석'              |
| 12. 식물학과 교수님   | '박터지게 싸우네.'             |
| 13. 사진학과 교수님   | '니들 다 찍혔어'              |
| 14. 법학과 교수님    | '니들 다 구속감이다!!'          |
| 15. 변호사법 전공교수님 | '내가 화해 시켜 줄게 이리 외봐.'    |



## 넌센스 퀴즈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의 얼굴이 폭탄이었다.  
그래도 남자는 굴하지 않고  
놀다가 저녁에 삼겹살 집에 가  
삼겹살 불판에다가 삼겹살은 굽지 않고  
마늘만 올리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 .
- .
- .
- .
- .

답 : 먹고 인간되라고..